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메디슨그룹  
Medison Group

www.medisongroup.co.kr

고객을 향한 단 하나의 진심!

BNK 부산은행

제1408호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장제원 불출마에 與주류 후속 결단 주목

## 김기현 대표는 '장고 모드'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3선 장제원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내 또 다른 주류 인사의 희생 결단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장 의원의 불출마는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주류 희생' 요구에 화답한 첫 사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 첫 번째 공식 불출마 선언이기도 하다.

장 의원의 결단 시점을 두고 당내에서는 예상보다 타이밍이 앞당겨졌다

는 해석이 나왔다.

### 금, 모레까지 외부일정 전면 취소…거취 놓고 막판 고심 중인 듯

혁신위의 거듭된 '주류 희생' 수용 요구에 맞아온 장 의원은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내 또 다른 주류 인사의 희생 결단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당 앞에서는 장 의원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만큼, 후속 선언을 통해 인적 쇄신 분위기가 끊기면 안 된다는 데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윤 그룹, 영남 중진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는 '주류 희생' 혁신안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장 의원과 김

대표가 우선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무엇보다 김 대표의 경우는 3·8 전당대회 때 장 의원과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꾸려 당권을 거머쥔 만큼,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앞서 사전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도 나왔다.

공교롭게 김 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계획했던 구룡마을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을 전날 급작스레 취소했다.

장 의원의 결단 시점을 두고 당내에서는 예상보다 타

이밍이 앞당겨졌다

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주변에 "이틀가량 공식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대표가 거취 문제와 관련해 막판 고심에 들어

갔으며,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주 공천관

리위원회 출범 후 거취를 표명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르면 이번 주에 결단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단 시점이 내년 1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를 두고 "너무 늦은

결정", "실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결단의 방향을 두고는 수도권 험지 출마 대신 불출마

또는 울산 내 '험지' 출마 선언에 무게를 두고 고민 중이며, 대표직 사퇴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김 대표는 주변에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을 다 이뤘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 간판'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내세운 뒤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자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대표뿐 아니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 불린 권성동, 윤한홍 등 '원조 친윤' 의원들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다만 강원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때 자리를 맡지 않았다가, 집권 초 여당 원내사령탑을 지냈으나 조기 사퇴한 뒤 당직을 맡지 않은 채 지역구 활동에 매진해 왔다는 점에서 장제원 의원 등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력으로 4선 고지에 오른 이력이 있다.

인수위에서 '첨와대 이전 TF 텁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권 출범 후 국회 상임위와 지역구 활동에만 전념해 왔다. 이 밖에 친윤 그룹 가운데서 초선이지만 윤 대통령과

가깝고 영남이 지역

구인 박성민, 박수영 의원 등의 선택도 관

심을 받고 있다. 아

울러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1명 중 31명을 차지하는 3선 이상 중진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선언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현재까지는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태경 의원이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게 전부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장 의원이 중요한 시기에 의미 있게 결단을 내려준 것 같아서 당시 많이 고마울 수밖에 없게 됐다. 그다음은 김 대표가 돼야 한다"며 "이제부터 꽤 많이 희생 혁신안 화답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 Photo News



구름과 눈의 조화…폭설 내린 대관령의 설경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12일 대관령 일원이 멋진 설경을 연출하고 있다.

### 보훈단체, 정율성 사업 반대 집회

#### 강기정 "시대착오적 시위"



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라"며 "정율성 역사공원을 호국·독립·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근현대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집회와 관련, 기자들과 차담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는 12일 "공산당 선동대장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회원 1천6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집회를 열어 "정율성은 광주 출신일 뿐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공산당에 가입한 6·25 전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6·25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그를 기념하는 것은 이런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

회에서 "정율성 반대 집회는 시대착오적인 시위"며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시위다"며 "노태우 정부 때 추진한 이 사업은 광주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 요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블로동 생활권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연말까지 48억원을 들여 완성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북한과 중국에서의 행적을 이유로 광주시에 공원 사업 철회를 요구하면서 논쟁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 김은성 기자

**posco**  
INTERNATIONAL

##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LNG사업 밸류체인 완성·



With POSCO

## 철근누락시 LH수주 원스트라이크 아웃…민간, 공공주택 단독시행

### 공공주택 공급 '경쟁체제'로…안전항목 위반시 LH사업 수주 제한

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또 건설 카르텔이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협과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이를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공



LH 전관특혜 의혹 김사청구 기자회견

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협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또 민간 건설 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 가능업체(3천100여개)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1천300여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이 현재 200여개에서 4천 400여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협과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감리 분야에서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 키로 했다. 또 전문 분야 경력이나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국가인증 감리자'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 감리로 우대하고, 감리업무 전담 전문법 인을 도입해 감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나아가 안전과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키로 했다.

/ 송원기 기자

### '또' 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넘게 접속지연…“입찰 몰려 과부하”

#### 마감 일시 도래 2천400여건 입찰 연기되고 이용객 불편 겪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겨 1시간가량 접속이 지연됐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한 달도 안 돼 발생한 두 번째 접속 지연 현상이다.

12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1시간 가량 나라장터 전산망 불통 현상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조달청은 장애 시간 동안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2천400여건의 입찰을 오후 1시 30분까지 연기하는 등 조처를 했다.

2002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나라장터는 입찰공고, 업체등록, 입찰·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조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안전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연말에 입찰이 몰리면서 발생한 과부하로 나라장터 접속이 일부 느려졌고 현재는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지연 경위 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0분까지 1시간가량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조달청은 당시 오전부터 국내에서 입찰 관련 다량 접속이 있었고, 해외 특정 IP에서도 접속으로 접속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과부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은 당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나라장터 업무 특성상 입찰이 오전 9~10시 30분 사이에 몰리는데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 끊어 아니라 지연이 된 사안으로, 지방행정시스템이 마비된 것과는 다르다"

며 "독일에서도 많이 접속했는데 왜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늘어났는지는 관련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도스 공격은 해커가 여러 PC를 해킹해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인데 이건은 그렇게 된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디도스 대응 장비도 운영하는데 나라장터 시스템이 핵심 시스템이다 보니 디도스 공격이 오면 대응하게 된다. 디도스 공격이나 외부 해킹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신자윤 기자

###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 조사

#### "조총련 무단 접촉"



배우 권해효

서를 보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하여 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며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여건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위서 제출 요구를 받은 영화인들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반발했다.

조은성 프로듀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일동포 관련 다큐를 10년 이상 여러 편 만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통일부 조치는) 제일동포 관련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김지운 감독·조은성 프로듀서도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에게 지난 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하 몽당연필)을 운영하는 영화인 권해효 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통일부 공문이 발송됐다.

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체계를 확립한다는 기조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교류 단체와 인사들은 규정대로 접촉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해도 통일부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최근 위안부 연구를 위한 조총련 인사 접촉 신고와 수리를 거부, 학술적 목적의 접촉까지도 불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두 감독의 사전 접촉신고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몽당연필은 웹사이트에 조선학교 방문·교류 사실이 공개돼 있으나 역시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인지해 경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몽당연필은 앞서 7월에 미신고 접촉으로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신고 없이 조선학교 인사와 접촉해 경위

/ 권도현 기자

# 與 “구리시민 67%, 김포 61%, 하남 60% 서울시 편입 찬성”

에이스리서치 의뢰 ARS조사…“생활환경·삶의 질 긍정영향 기대”

국민의힘은 경기도 구리·김포·하남 시민 10명 중 6명가량이 서울시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18세 이상 지역 시민(구리 803명·김포 812명·하남 8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편입에 찬성한 비율은 구리가 67%로 가장 높았고, 김포 61%, 하남 60%였다. 반대 비율은 하남 37%, 김포 36%, 구리 29% 순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에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위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두 60%를 넘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경기 분도(分都)와 관련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1일 김포통합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는 앞으로 메가시티 홍보영상 자료를 제작하는 한편 메가시티 지원법안인 ‘시도의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응답률은 각각 구리 5.4%, 김포 6.1%, 하남 5.7%였다.

/ 조규형 기자

## 한동훈 장관 ‘청년보좌역’에 서른살 범죄심리학자

경찰 가정 출신 ‘이수정 제자’  
청년정책 발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도입된 법무부 ‘청년보좌역’에 30세 범죄심리학자가 발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홍정운(30)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를 청년보좌역에 임명했다. 홍정운은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2021년 한국행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등을 지냈고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 전공 겸임교수로 교편을 잡았다.

할을 한다.

홍 보좌역은 계명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59) 경기대 교수가 홍 교수의 지도를 맡았다.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2021년 한국행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등을 지냈고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 전공 겸임교수로 교편을 잡았다.

홍 보좌역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직



홍정운 법무부 청년보좌역

업이 경찰관이었다. 사건, 사고, 잠복근무, 취조, 자백.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접하는 일이었다”고 자신의 성장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형사정책 현안 중 하나인 스토킹

범죄 대응을 두고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국내에는 스토킹 범죄자 대상 위험성 평가 도구는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아쉬워하며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 보복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피해자의 목숨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 보좌역은 이달부터 시행된 법무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년세대 20명으로 이뤄진 자문단 단장도 맡아 법무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 수렴·전달, 청년정책 과제 발굴·제안 등을 할 예정이다.

/ 채형민 기자

## 119신고 폭주할 때 장애 없도록…‘백업 센터’ 만든다

### 119긴급신고법 국회 통과…“소방 대응역량 강화 기대”

119 신고가 폭주할 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119긴급신고법은 ▲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 신고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 긴급신고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2020년 여름철에 내린 폭우로 부산과

대전 등에서 40여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비롯해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 등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형 사고로 신고가 몰리면서 발

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119 비상접수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소방의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훈 기자

## 이낙연-이상민 회동…“훌륭한 분들 모아 세력화 필요”

### 이상민 “민주당 뜯어고치는 것 부질없어…이낙연도 공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대화를 나눈 후 배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11일 회동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전 대표 사무실을 찾아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게 뜻을 같이하는 훌륭한 분들을 모아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사

입한다.

‘이 전 대표가 요청한 게 있나’라는 물음에 이 의원은 “앞으로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자는 정도였다”고 대답했다.

이 전 대표가 연일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이 의원 역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지만, 신당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신당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사쿠라’ 등의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해 “사람 품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총리까지 했는데 오죽하면 (그런) 고민을 하겠나”라며 “본질을 성찰하고 반성할 게 없는지 봐야지, 그냥 헐뜯고 생채기 내고, 괴물과 싸우면서 스스로 괴물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현서 기자



2024 수능 수학,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무려 13%에 달

기자회견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킬러문항’ 덜어내도 사교육 과열 여전 “절대평가로 바꿔야”

교육 참여 대열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대평가 구조에서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수능의 퀄리티 제거와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8개 시민단체와 교원노조, 더불어민주당 강득주·강민정·김영호·문정복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능 성적이 발표된 후 사교육 시장은 ‘불수능’의 행위에 물을 만난 듯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사교육비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근본 원인은 퀄리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대통령실, 이바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지금이라도 단행 귀를 열고 시민사회와 협력하라”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정

대화 상임위원, 전국지도교육감협의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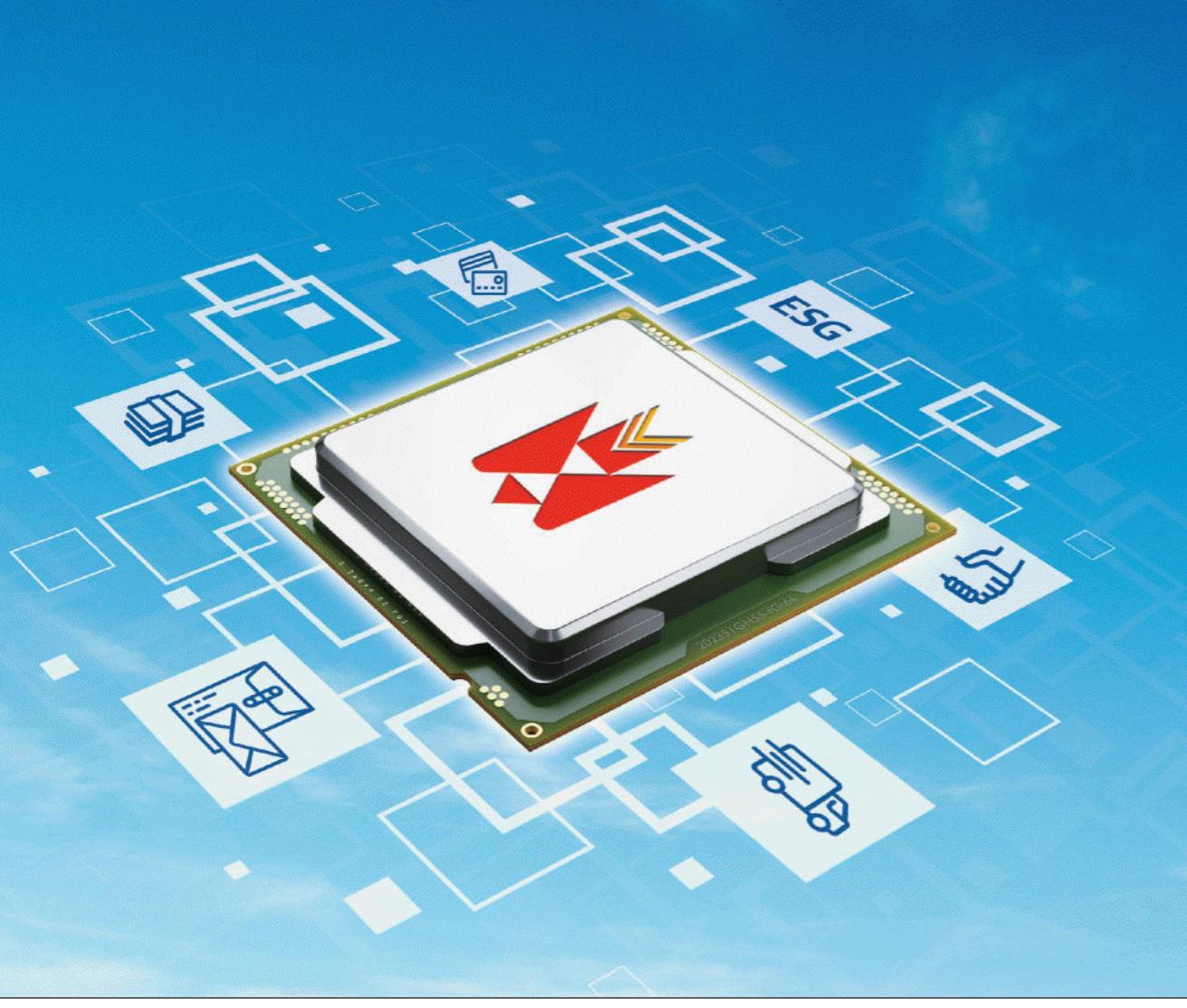
으로 국교위 당연직인 조희연 위원, 학부모 대표인 전은영 위원을 만나 대입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보탰다.

/ 박정훈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디지털 혁신을 시작합니다

더 빠른 우편 서비스,  
더 편한 금융 서비스, 더 넓은 공익 서비스로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 우정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 ‘이낙연 신당’ 가시화에 野 술렁…고심 깊어가는 이재명

이낙연, 총선 앞 사실상 마이웨이 선언…세력화 가능성엔 물음표



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전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친정체제’를 정면 비판하며 신당 청당 의지를 밝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돌출한 ‘이낙연 신당’ 움직임에 당내는 계파를 불문하고 극도로 술렁이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장격인 이 전 대표의 ‘마이웨이’ 선언이 현실화할 경우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식 탈당과 신당 합류가 실제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염려해 보폭을 넓혀온 이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창당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힌 데 이어 “새해에는 새로운 기대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며 창당 시점까지 거론했다. 일단 당내에서는 당장 비명계의 탈당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데다 이 전 대표의 독

자 세력화가 여의찮다는 점을 들어 이낙연 신당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당 고위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함께 할 당내 세력은 없는 게 현실 아니냐”라고 말했다. 다만 진명(진이재명) 지도부에 반기를 든 비명계 4인방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추후 독자행동에 돌입할 경우 ‘이낙연 신당’이 점차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지도부에 당내 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이달 안으로 내놓으라고 못 박은 상태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은 필패”라며 최근 강성 지지층을 향해 비명계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좀처럼 내용은 수습되지 않고 있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의 골은 오히려 ‘이낙연 신당’ 이슈로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김민석 의원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사쿠라’(변절한 정치인)라고 비난하자 비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탈당 이력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일단 이 전 대표와 비명계 세력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소통과 통합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대표가 가까운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이 대표는 진정성 있게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하며 인재 영입에 주력할 방침”이

라며 “지도부도 현재로선 이낙연 신당 등에 대한 대응 논의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 3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 연대설’이 불거지기도 했던 만큼 이 대표는 전직 총리들과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일단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일대일 만남을 조율 중이다. 다만 물밑에

서 추진되던 이른바 ‘명나 회동’은 이 전 대표의 완강한 입장 때문에 성사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20일쯤 두 분(정세균·김부겸 전 총리)과 따로따로 만나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는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이 대표와의 직접적 소통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천윤(천윤석열)계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1일 “제가 잠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 장제원 불출마 인적쇄신 신호탄 될까 與 “尹정부 성공 위한 희생”

국민의힘 ‘천윤’(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당내에선 환영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인요한 혁신위가 요구한 ‘주류 희생’을

가장 먼저 수용한 만큼 이를 계기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여권 내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천윤 핵심 인사들을 향해 거취 표명을 요구해온 비주류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한 것 아닌가”라며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려놔야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

의힘의 지도부나 ‘윤핵관’이 자기 보신만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이미지는 희석했다”며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기를 다 내던질 각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도부도 필요하다면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의원은 총선 승리의 밑알이 될 것”이라며 “멋진 결단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장 의원의 불출마를 신호탄으로 김기현 대표 역시 조만간 출마 여부와 관련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지도부를 비판해온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가장 바라는 분이고, 대통령을 위한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김 대표도 불출마한다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 송유영 기자

## 한미 합참의장 통화

### “북핵 위협 대응에 한미일 협력해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칼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공조통화를 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이날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간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정상 가동하도록 추진하고, 다년간에 걸쳐 한미일 3자 훈련계

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합참의장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수준으로 군사활동을 환원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연대 강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행동하는 동맹’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박민준 기자

## 정세균, 이낙연 등 3총리 연대설에 “그런 것 없다”

### “난 대화와 통합을 항상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



김영주 국회부의장 출판기념회 찾은 정세균

각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사 종료 후 ‘민주당 격정’이 무엇인가는 기자 질문에 “지금 국민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우리 국회가, 그리고 정당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격정이 많으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와 조만간 만날 것이라는 질의에는 “나는 항상 통합론자, 통합주의자”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나는 당 대표 할 때도 그렇고 민주당 정당 활동을 하면서도 대화와 통합을 항상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에서 정 전 총리는 ‘분열’보다는 ‘통합’ 필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출판기념회 축사에서는 “많은 분이 민주당을 걱정한다. 민주당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달리 보면 여당은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국민 여러분이 정치를 보는 시

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사 종료 후 ‘민주당 격정’이 무엇인가는 기자 질문에 “지금 국민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우리 국회가, 그리고 정당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격정이 많으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정치인데, 국민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와 걱정에 대해 우리 정치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항상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흥명섭 기자

## 진보당, 정의당에 별도 신당 역제안

### “총선용 선거연합 넘자”

진보당은 12일 정의당의 ‘선거연합신당’ 합류 제안에 “특정 정당으로 들어가야 하는 최소 진보가 아니라 함께 시작하는 최대 진보로 나아가자”고 답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모든 세력과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을 결집하는 하나님의 진보연합으로 내년 총선을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용 선거연합을 넘어 진보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자”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직업민주지역당연합 등 진보좌파 성향의 4개 당에 선거연합신당 합류를 제안했다. 진보당이나 녹색당 등이 연합에 합류하려는 후보들은 기존 당에서 탈당, 정의당에 만든 선거연합신당에 들어와 총선을 치른 뒤에 원래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정의당 방식으로는 4개당 이외 세력이 합류하기 어려우니, 진보 정치 세력 전체를 아우를 신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하자고 역제안을 한 것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의당의 제안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노총이나 여타 정당이 함께하기에는 일부 제약이 있다”면서 “하나의 진보 플랫폼으로 총선을 치러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혁 기자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로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  
KOTIT 신용보증기금

#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없어”

최윤종, 한숨 쉬며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 명복 빈다”



최윤종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펴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한숨을 쉰 후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검찰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는 피해자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살해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그가 수사 단계에선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웃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을 바꾼 경위를 추궁했다.

최윤종은 “수사 당시 말실수한 것 같다”며 이 부분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검찰의 거듭된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피해자 부검 감정서와 법의학 교수의 증언, 경찰 수사 당시 범행 모습을 재현한 사진을 제시하며 “목을 조른 게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최윤종은 (“감정 결과가) 틀린 거 같다”며 거듭 부인했다.

최윤종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신문에서 증인석 의사에 걸터앉아 고개를 가웃거리거나 머리를 긁적이고 질문 내용을 되묻기도 했다. 이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유족은 울먹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최윤종의 1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 송진영 기자

## “암사사고 예상했다면 군대라도 동원했겠지만…상상도 못해”

전 용산부구청장 “시설물 사고 등 대비…질서 문란은 행정청서 할 수 없어”



공판 출석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승재(57) 전 용산구 부구청장도 재판에서 암사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재판을 열고 피고인 중 한 명인 유 전 부구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유 전 부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암사사고가 날 것을 예상했다면 그렇게 대응했겠느냐”며 “예상했으면 군대라도 동원했겠지만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헬리원을 앞두고 구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당부했던 데 대해선 “안전사고는 시설물에 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파가 몰려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선 이전에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한 적이 없다”고 답했

다. 당시 회의에서 “매번 헬리원 때 현장에 나갔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이 와서 밀려날 정도였다. 세계음식거리 쪽이 그랬다” 등의 발언을 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등을 특정했다는 지적에도 “그곳뿐 아니라 이태원은 평소 주말에도 사람이 많고 금~일 저녁 8~9시에 사람이 몰리니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구청장은 구청에선 소음 관리, 청소 계획 수립 등 헬리원과 관련해 구청이 대응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으며 인파 관리는 경찰의 업무라는 피고인들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구청이 예상한 ‘인파 운집 사고’에 대해 “행정청에서 하는 건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지하철 홍풍구 낙하 사고 등에 대한 대비이지 전혀 그것(암사사고)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몰려서 질서가 문란해지고 하는 건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해 헬리원 때 구청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데 대해 경찰이 이미 자체적으로 인력 배치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에서 구청도 인파관리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1월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 권영수 기자

## 보이스피싱 속아 서울서 부산으로 이동해 3천만원 인출할 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 20대가 은행 직원의 기지로 거금 3천만원을 지켰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께 부산 하나님행 조량지점에 20대 여성 A씨가 현금 3천만원을 인출하겠다며 찾아왔다.

이 지점에 근무하는 B씨는 한 번에 거금을 찾겠다는 A씨의 말을 듣고 이를 수상히 여겨 이유를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검찰에서 대포 통장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됐으니 3천만원을 인출하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다. 이에 B씨는 직감적으로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A씨는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왔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특정 숙박업소를 지정해 머물게 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며 “A씨는 자신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직원의 말에 순응하게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 신지호 기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재판  
18일 마무리…내년 초 선고할듯

장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결심 공판에서 입장장을 밖히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 측은 봉투 하나당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는 기존의 주장은 유지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협의’했을 뿐 지시·권유·요구한 적 없고, 단순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윤 의원은 송영길 캠프를 총괄 지휘하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송 전 대표를 도우려다 연루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봉투가 전달된 날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의원이 접촉한 정황을 제시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씨의 통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 윤 의원이 송 전 대표와 30분간 면담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씨가 2021년 3월 강씨에게 발송한 경선캠프 운영비 내역과 관련한 카카오 톡 메시지에 ‘강래구 애씀’이라고 기재했고, 이 메시지의 최종 수신자는 송 전 대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형철 기자

##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 뇌물’ 의혹

SPC 현직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찰(김형주 부장 검사)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62) SPC 대표이사의 서울 양재동 본사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 회장을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의 뇌물공여 정황은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

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의 전직 대표이사로,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뇌물공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조 탈퇴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노승만 기자

**꿈이 깃든 기술력에  
기술보증기금이 희망을 DREAM**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개방형 기술혁신 전담 기관

테크브릿지 SMART TECH-BRIDGE 기업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의 모든 과정을 기보가 지원합니다.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tb.kibo.or.kr>)

기술기업의 start up부터 scale up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 기술혁신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이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KIBO 기술보증기금

## 각종 이슈에도 ‘최고 갑부’는 여전히 머스크…“올해 117조 늘어”

### 테슬라 주가 연초 대비 회복…블룸버그 집계 순자산은 총 297조6천억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각종 이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블룸버그통신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지난해 말 대비 887억 달러(약 116조8천억원) 늘어난 2천260억 달러(약 297조6천억원)로 추정됐다.

머스크는 억만장자 지수에 포함된 500인 가운데 순자산 총액과 올해 증가액 모두 가장 많았다.

최근 전기차 수요 확장 등이 테슬라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머스크를 둘러싸고 반(反)유대주의 및 엑스(X·옛 트위터) 경영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순자산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머스크의 자산 규모는 테슬라 주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1일 기준 주식·옵션 등을 통해 테슬라 지분 23%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의 자산 가운데 테슬라 지분 비중이 3분의 2 정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동성 장세 속에 2021년 11월 400달러를 넘겼던 테슬라 주가는 올해 1월 장중



일론 머스크

101달러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반등해 7월 299달러를 회복했다가 8일(현지시간) 243.84달러로장을 마감했다.

머스크는 로켓기업 스페이스X와 소셜미디어 엑스 등도 소유하고 있으며,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440억 달러(약 57조9천억원)에 인수해 지분 74%가량을 보유한 엑스는 현재 기업가치가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머스크는 연초 주가 급락으로 프랑스 명품그룹 루이 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최고 갑부 순위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한 바 있지만 6월부터 다시 선두로 올라섰다.

LVMH 주가는 명품 산업 업황둔화 속에 7~10월 하락세를 그리다 최근 낙폭을 일부 줄이고 있다.

포브스 부호 순위에 따르면 머스크는 2021년 9월 세계 최고 갑부로 올라섰고, 지난해 12월까지 대체로 이 자리를 유지했다. 이후 아르노 회장에게 자리를 내줬다가 6월 8일 1위로 다시 올라왔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가 집계한 11일 기준 순자산 규모 2위는 아르노 회장(1천750억 달러·약 230조4천억원), 3위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1천720억 달러·약 226조5천억원)다.

또 4위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1천 350억 달러·약 177조8천억원), 5위는 스티브 발머 전 MS CEO(약 1천290억 달러·약 169조9천억원)였다.

/ 성진욱 기자



유엔 총회

### 유엔 12일 긴급총회…안보리 마비 속 ‘가자휴전 총의’ 모은다

#### “인도주의 재앙 우려…즉각적 휴전과 인질석방 요구”

유엔총회가 오는 12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파 하마스의 전쟁에 따른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문제를 논의한다.

11일 AFP통신과 신화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데니스 프랜시스 유엔총회 의장은 오는 1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논의하는 제10차 긴급특별총회 제45차 전체회의를 연다고 회원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올해 크립반도에서 저지한 ‘테러 공격’이 1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FSB는 “러시아가 임명한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자치공화국 수반과 친러시아 성향 우크라이나 정치인 올레그 차례프에 대한 암살 시도도 저지된 테러 공격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아랍국가들을 대표한 이집트와 이슬람협력기구(OIC) 의장국인 모리타니로부터 본회의 개최요청에 따라 이번 회의를 소집한다고 설명했다.

이집트와 모리타니는 프랑스 의장에 계 보낸 서한에서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총회를 시급히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총회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AFP는 해당 결의안 초안이 지난 8일 부결된 안보리 결의안과 비슷하게 “가자지구의 재앙적인 위기 문제를 논의한다.”

11일 AFP통신과 신화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데니스 프랜시스 유엔총회 의장은 오는 1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논의하는 제10차 긴급특별총회 제45차 전체회의를 연다고 회원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앞서 10월 말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앞서 지난 8일 안보리 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제출한 휴전 촉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 황유진 기자

### 러 정보당국 “서방서 젤렌스키 교체 필요성 논의 고조”

#### “지키지 못하는 약속, 무례함, 부패 등이 이유” 주장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은 서방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11일 주장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SVR은 성명에서 “주요 서방 국가의 고위급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현 대통령인 젤렌스키를

교체할 필요성에 대해 그들끼리 더 많이 논의하는 믿을 만한 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승리하기 위해 전쟁을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를 넘었으며, 분쟁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발생해도 러시아와 협상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SVR은 “러시아를 이긴다는 이행될 수 없는 약속들, 외국 파트너들과 협상할 때

보여준 끝없는 무례함, 끊임없는 정실인사와 부패 등 이유가 거론됐다”며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서방 정치인들조차도 그 규모에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젤렌스키가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의 분쟁을 조절할 능력을 상신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교체 필요성이 조만간 대두한다는 미국의 정보가 있다면서 유럽연합

(EU)에서는 발레리 잘루조니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과 키릴로 부다노프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올해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협력업체 직원, 방사성피폭 가능성”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작업

일본 도쿄전력은 11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폐로 작업에 참여하던 협력업체 20대 남성 직원이 방사성 물질로 안면 부위가 오염돼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남성은 오염 확인 뒤 병원에는 가지 않고 발전소 구내에서

/ 광민웅 기자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안 처리 촉구하는 바이든

미국인 절반 가까이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피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FT와 미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이 지난 5~6일 미국인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재정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8%에 달했다.

반면 “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7%, “충분히 지출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중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비율이 높았다. 공화당 지지자 중 65%가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해 민주당 지지자(32%)이나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52%)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추가 지원 예산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고갈될 것을 경고하며 연내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입국자를 막기 위한 국경 예산

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불로 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12일 백악관에 전격 조청하기로 했다.

/ 노종현 기자

### 알아서 쟁여주는 투자메이트 신한투자증권 신한알파 3.0

- 다른 증권사의 보유종목도 편하게 관리하고
- 투자자들의 매매 정보도 한눈에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변동, 현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주식 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91639%(거래금액, 국가별 상이)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285호 (2023-06-26 ~ 2024-05-31)

 신한투자증권



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원하신다면?

★ **양방향 문자** 하나면 쓰던 사무실 번호로  
고객과 소통을 더 편리하게!

문자도 사진도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받은 답변은 알아서 데이터로 정리까지!  
이제, 사용하던 사무실 번호 그대로 손쉽게 문자업무 하세요

## 메시징DX 양방향 문자 서비스



양방향 문자 | kt enterprise  
KT 화선 사용자 대상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080-258-0303  
enterprise.kt.com

수원특례시 포함 240여개 지자체 및 기업 도입 중 (2023.11월 기준)

kt

# 김범수 “새 카카오로 재탄생해야…사명도 바꿀 각오”

“영어 이름·수평 문화도 원점 검토 필요…‘희생’ 필요할 수도”

검찰 수사 등으로 위기에 놓인 카카오 [035720]의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11일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카카오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회사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본사에서 진행된 직원 간담회 ‘브라이언톡’에서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카카오를 설립해 크루(직원)들과 함께 카카오톡을 세상에 내놓은 지 14년이 되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창업자가 직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은 2021년 2월 말 재산 절반을 기부하기로 하고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임직원들과 논의한 후 2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직원 400여명이 참가했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20차례 이상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 창업자는 “기술과 자본이 없어도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플랫폼 기업을 만들고자 했고, 이를 위해 열정과 비전을 가진 젊은 CEO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마음껏 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성장 방정식이라고 생각했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빠져나가야 한다”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했으나 지금은 좋은 기업인지 조차 의심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창업자는 “우리를 향한 기대치와 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간극에서 발생하는 빠그덕대는 조짐을 개편으로는 부족하다”며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카카오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쇄신위원장으로서 의지를 갖고 새로운 카카오로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배의 용골을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 카카오는 회사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며 “새로운 배를 건조하는 마음가짐으로 과거 10년의 관성을 버리고 원점부터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열사마다 성장 속도가 다른 상황에서 일관적인 자율 경영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투자와 스톡옵션과 전적인 위임을 통해 계열사의 성장을 끌어냈던 방식에도 이별을 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사회와 이해관

계자들의 기대와 눈높이를 맞추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선

을 위해 김 창업자는 확장 중심의 경영전략을 리셋(초기화)하고 기술과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화할 수 있을지의 관점으로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숫자적 확장보다 부족한 내실을 다지고 사회의 신뢰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찾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는 “느슨한 자율 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카카오로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구심력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그룹 내 거버넌스도 개편 의지도 피력했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 기업 문화와 관련해, “현재와 미래에 걸맞은 우리만의 문화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영어 이름 사용, 정보 공유와 수평 문화 등까지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새로운 카카오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 여정에 카카오와 계열사 크루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부터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날선 질책도, 쇄신에 대한 의견도 모두 경청하겠다”며 경영진의 각오를 요청하면서 “모바일 시대에 사랑받았던 카카오가 AI 시대에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 창업자는 이날 오전 제7차 비상경영회의를 주재하고 카카오 공동체와 키카오모빌리티 등 계열사의 경영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류금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자사 쇄신안에 대해 “(경영회의에서) 계속 논의와 공유를 하고 있다”며 “연내 (택시업계와의) 협의 내용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황순길 기자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대표

## ‘창업멤버’ 최현만, 미래에셋운용 지분 매각으로 450억원 손에

지난 10월 인사 때 일선에서 물러났던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가족회사에 약 450억 원에 처분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달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 전 회장을 비롯한 개인주주 3명의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 35만5천911주를 주당 15만2천345원에 장외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2.17%(29만5천55주)를 처분해 약 449억5천만원을 손에 넣게 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과 부인 김미경씨의 지분율이 각각 48%, 10% 이상인 회사로, 이번 주식 취득으로 인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지분율이 36.92%로 높아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이 비상장 주식인 만큼 최 전 회장에 대한 미래에셋그룹 측의 ‘배려’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박민준 기자

한 업계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지분 매각을 희망했고 미래에셋컨설팅 측이 이를 응하면서 양측이 합의된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안다”며 “그간 최 전 회장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일종의 위로금 성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비상장 계열사 지분인 미래에셋캐피탈(24만9천480주·0.98%)도 유사한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 전 회장은 1997년 자본금 100억원의 벤처캐피탈로 출발한 미래에셋그룹의 대표적인 창업 공신으로 26년만에 자기자본 11조원의 국내 1위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하는 데 견인자 역할을 했다.

지난 10월 인사 때 조웅기 부회장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최경주 부회장 등 미래에셋 창업 멤버들과 함께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위촉됐다.

/ 최병진 기자

## 통신업계 “6세대 이동통신 구축 재원에 정책적 지원 필요”

윤종록 전 차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 과거, 현재, 미래 워크샵

일시\_ 2023년 12월 11일 13:00-17:00  
장소\_ 서울 과총회관 211주 회의실2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을 때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종 산업과 융합 등 기업간거래(B2B) 영역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면서 “아직 그 꽃이 개화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6세대 이동통신 국제 기술 표준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핵심 기술의 적시 개발을 위해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통신법 외에도 타 산업의 법률이 조화롭게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을 구상한 윤종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하드파워의 시대가 가고 소프트파워 세상이 온다”고 강조했다.

/ 최병진 기자

## 한미약품 “백혈병 신약 물질 임상서 단독·병용 모두 효과”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신약후보 물질 ‘투스페티닙’의 임상 1·2상 시험에서 단독 투여와 병용 투여 모두 효과를 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지난 9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 혈액학회’(ASH)에서 한미약품의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 기업 ‘앱토즈’가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환자 68명을 대상으로 투스페티닙 80~160mg을 단독으로 투여한 결과 기존 백혈병 치료제인 ‘베네토클락스’로 치료해본 적 없는 환자 28명 중 8명(29%)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관해’가 확인됐다. 약물 관련 독성으로 인한 투여 중단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 49명을 대상으로는 투스페티닙과 베네토클락스를 함께 투여했는데, 이중 36명에 대한 평가 결과가 이번에 발표됐다.



베네토클락스로 치료해 본 경험이 없는 환자 7명 중 3명(43%)에서 완전 관해가 관찰됐으며, 베네토클락스로 치료해 본 환자 29명 중에는 6명(21%)에서 완전 관해가 나타났다.

/ 박선진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월 13,500원

월 6,900원

월 15,900원

월 900원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함께하는  
100년 농협

# 항상 그리워하던 고향이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맛, 고향의 그리움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마음을 전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가정에서 받아보세요

띵~통!



마음을 보냈습니다. 고향에게  
정성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부터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담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담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담례품 지급

##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 농축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불가)

## 폐기물업체서 수십억 빌린 김영환 충북지사 '직무관련성' 논란

### 충북서 폐기물 사업하는 업체 관계사로부터 서울주택 담보로 30억원 빌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지역에서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폐기물업체 관계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기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연면적 277㎡)를 담보로 A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한국 형태의 건물과 토지는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김 지사가 당선 전 병원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청주에서 폐기물처분업을 비롯해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A업체는 김 지사의 이 부동산에 3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은 금전거래를 두고 일부에서는 직무 관련성 소지가 큰 부적절한 금전거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



자신 소유의 부동산 설명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시설의 확장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C업체는 최근까지 시설을 확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하기관에 제출했다가 취하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확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행동을 도지사가 지역 사업가와 진행한다는 게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백으로서 자격에 의구심을 들게 하는 이 문제를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최근 해당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했고, 중도금 반환을 위해 A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통해 이 건물과 토지를 75억원에

매각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5억원을 받아 자신과 배우자의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충북지사에 당선된 후 수개월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놓고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했다. 매수자를 공개하라”는 등의 비판여론이 일자, 매수인이 부담을 느끼고 계약파기를 요청해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종전 매매계약이 과기돼 금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 의사 있는 A업체로부터 매매계약을 염두에 둔 채무 형태로 돈을 빌려 쓴 것”이라며 “부동산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 채무를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업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느라,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 등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적법하게 이뤄진 거래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김석호 기자

을 통해 재생 자전거로 거듭나게 된다.

매해 약 1만5천대의 방치 자전거가 수거되는데, 올해에는 2천575대의 버려진 자전거가 재생 자전거로 재탄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새 자전거를 제작할 때는 다량의 탄소가 발생하는데, 올해 재생 자전거 생산으로 탄소 배출을 약 15만6천128kg가량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 백서윤 기자



축사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 강기정 광주시장, 세계 100여 도시 시장 상대 '도시 외교'

강기정 광주시장이 자매 도시인 중국 광저우에서 세계 주요 도시들을 상대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6~9일 광저우를 방문해 국제도시 혁신상 시상식 참석, 관광 활성화 행사,

콜롬비아 보고타·호주 다윈시장과 면담 등으로 광주의 매력을 알렸다.

특히 ‘제3회 세계 시장 포럼’에서는 100여 시장과 만나 도시 협력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포럼 개막식에서 세계 지방정부연합 총회 회장, 세계 대도시연합 총회 회장, 광저우시장에 이어 네 번째로 축사에 나선 강 시장은 “광주는 도시의 속성이 능성을 포용성에서 찾는다”고 소개했다.

기조연설에서도 제6회 광저우 국제 도시 혁신상을 받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소개했다.

봄’ 정책을 주제로 민주 도시 광주의 포용성을 알렸다.

1996년 자매결연 후 교류를 이어가는 광저우는 물론 보고타, 다윈 등 해외 도시와도 교류의 폭을 넓혔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독일 라이프치히·뉘른베르크, 미국 샌안토니오 등 해외 자매·우호 도시들과 인공지능(AI), 문화·예술, 스포츠 등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베트남 응에안성,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등과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만남으로 광주의 기업, 산업, 문화예술을 수출하며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후 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에도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 서울시, 내달까지 방치 자전거 집중수거…도시미관 개선

#### 올해 방치 자전거 2천500여대 재생 자전거로 탈바꿈

거치대 등 공공시설물 외에 대학교, 아파트 등 사유지에서도 집중 수거를 벌인 바 있다.

이번에도 사유지를 포함해 수거를 진행한다.

사유지에서 수거하는 경우 관리 주체가 자체 계고 및 처분공지 완료 후 관할 자치구 자전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수거

한다.

별도 관리사무소가 없는 개인 소유의 건물 등도 소유주가 자체 계고 및 처분공지 완료 시 무상 수거가 가능하다.

자전거 폐기물 원하는 소유주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자전거 포’에 자전거를 맡기면 된다.

이렇게 전달된 자전거는 부품 교체 등

을 통해 재생 자전거로 거듭나게 된다.

매해 약 1만5천대의 방치 자전거가 수거되는데, 올해에는 2천575대의 버려진 자전거가 재생 자전거로 재탄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새 자전거를 제작할 때는 다량의 탄소가 발생하는데, 올해 재생 자전거 생산으로 탄소 배출을 약 15만6천128kg가량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 백서윤 기자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 금융파트너

증권사  
PB

한 명쯤은

알면  
좋잖아요

이제, 내 투자에도 믿는 구식이 생겼다

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

KB증권  
PRIME CLUB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누구나 전화나 톡으로 뚝딱!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

PRIME 센터  
무료 자산관리 상담  
1566-0055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627호(2023.09.26~2024.09.25) \*투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S/홈페이지 0.015%/비밀번호 0.1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거래 이용율은 비대면 계좌 또는 협력업체 계좌가 영수증 개설 개장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비대면 계좌 최대 연9.1% ~ 최소 연4.9%) \*PRIME CLUB 1년 월 결제 유형(자동이체)으로 기입시 월 1만 원이상 요금 충금된다. \*프리미엄 멤버 월 1종목 증정 이벤트(공지 참조) \*PRIME CLUB 무료 회원가입 시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프리미엄 멤버 월 1종목 증정 이벤트' 공지 참조)

KB증권

### 대전시·충북도, 충청권 메가시티 방안 논의

####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개발제한구역 활용 등에 협력키로



대전시·충북도, 협약 간담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대전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전~

대전·충북 간 노선을 충북 동북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한편, 대전과 충북 경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도시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약속했다.

대청댐과 청남대를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배성현 기자

### 경기도 'The 경기패스', 국토부와 협력체계 구축한다

경기도는 1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 및 통합교통서비스(MaaS)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김영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을 만나 국토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한 주요 협의사항을 논의했다.

K패스는 월 21~60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매달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와 연계해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환급 대상 청년 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 상황을 대광위와 공유하면서 경기도 주민 추가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주요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전국 단위 통합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대광위의 K-통합교통서비스와 경기도의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할 때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우월한 교통비 정책”이라며 “대광위와 긴밀히 협력해 더 큰 혜택을 주는 사업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3일 수원에서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시군 의견 수렴을 위해 31개 시군과 회의를 갖는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업체 관계사로부터 서울주택 담보로 30억원 빌려

매각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5억원을 받아 자신과 배우자의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충북지사에 당선된 후 수개월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놓고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했다. 매수자를 공개하라”는 등의 비판여론이 일자, 매수인이 부담을 느끼고 계약파기를 요청해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종전 매매계약이 과기돼 금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 의사 있는 A업체로부터 매매계약을 염두에 둔 채무 형태로 돈을 빌려 쓴 것”이라며 “부동산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 채무를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서정균 기자





#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 '서울의 봄' 흥행 중이지만…전두환 호 딴 일해공원 명칭 그대로

2007년 명칭 개칭 후 논란 16년째…합천군 “내년 상반기 공론화로 의견 수렴”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 수 7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경남 합천군에 있는 '일해 공원' 명칭은 그대로여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온다.

12일 합천군 등에 따르면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이 공원은 2007년 합천이 고향인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호 '일해(日海)'를 딴 일해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고동의 간사는 "최근 영화 서울의 봄 개봉 이후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에 분노를 표하는 사람이 많다"며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 공원을 지금처럼 편향적인 이름으로 놔두는 건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해공원 개칭 이후 지금까지 사회 각계에서 줄기차게 명칭을 다시 바꾸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 그대로다"라며 "이번 영화로 공론화 논의가 더 진전



일해공원 비석

돼 (일해공원)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해공원은 명칭 개칭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논란이 일었다. 명칭이 바뀌던 2007년 사회 각계에서 찬반 주장이 대립하며 논쟁이 격화됐다.

이러한 논란은 올해로 16년째이지만, 존치와 변경이라 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 명칭 변경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운동본부는 2021년 일해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 열망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1천500여명의 군민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군은 명칭을 바꾸는 지명위원회를 지난 6월 열었다. 그러나 현 일해공원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제정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했다.

군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군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면서 "제3의 기관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이 명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도내 6개 지역 언론사가 공동 의뢰한 군민 여론조사에서는 '명칭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칭 존치 49.6%, 명칭 변경 40.1%, 잘 모름·기타는 10.3%로 나온 바 있다.

/ 정희철 기자

## "송어야 조금만 더 기다려"...평창송어축제 개막 1주일 연기

겨울답지 않은 날씨 오대천 결빙 늦어져…29일부터 한 달간

평창 송어축제가 오는 29일 개막해서 내년 1월 28일까지 한 달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축제 개막일을 애초 22일에서 29일로 일주일 연기하고 11일 밝혔다.

최근 겨울답지 않은 영상 기운이 이어지면서 축제장인 오대천의 결빙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창송어축제는 2007년 개최 이후 계

속 성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효자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중단됐다가 열린 지난해 축제 때는 4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 축제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송어도 작년보다 20t가량 더 방류한다.

축제장인 오대천에는 4개 구역의 얼음낚시터를 조성한다.

축제장 규모만 9만여㎡에 달한다. 5천 명의 관광객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광활한 면적이다.

펭이치기, 썰매 타기, 눈썰매 등 전통 놀이를 비롯해 스케이트와 스노우 래프팅, 얼음 자전거, 범퍼카, 얼음 카트 등 다양한 놀이도 즐길 수 있다.

최기성 평창송어축제위원장은 "얼음이



평창송어축제 맨손잡기

최소 20cm 이상 돼야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며 "안전과 즐거움을 위해 축제 개막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양희진 기자

## 포항시장 “지진 소송대란 현실화…정부 일괄배상 의지표명해야”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11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1심 판결 이후에 소송대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일괄배상에 대한 정부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시는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고 정부에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일괄 배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촉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송 대란이 현실화된 만큼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



기자 간담회하는 이강덕 포항시장

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 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민이 변호사 사무실에 몰리면서 소송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선고일 이후 16일간 주민등록초본 15만천200여건이 발급됐고 포항시청 내 안내센터에는 하루 평균 700여건의 전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촉발 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민원

상담과 행정서류 발급, 법원 재판업무 과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고인 포스코, 대한민국,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은 지난달과 이달에 각각 항소했고 원고 중 일부도 항소했다. 포항시는 판결 이후 소송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에 일괄배상을 건의했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대해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포항지역 변호사회나 수도권 법률전문가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와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일괄배상에 대한 정부 의지 표명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법령 별위 내에서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피해 주민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차현우 기자

## 양천구,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캠페인

다음달부터 ‘청사에 일회용컵 반입 금지’ 예정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12일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조직문화화를 실천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구청사 총별 복도와 동주민센터, 보건소에 다회용 컵 회수기를 설치하고, 부서 및 동마다 매주 30~50개의 다회용 컵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회용 컵 대신 사전 지급된 다회용 컵을 사용한 후 총별 회수기에 반납하는 방

식으로, 회수된 컵은 전문 세척업체의 살균·세척을 거쳐 다시 공급된다.

청사 내 카페 2곳에도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비치해 의무 사용토록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부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사람이 사용하는 종이컵 개수가 4.84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청사 다회용 컵이 상용화되면 한 달에 직원 1명당 약 20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양천구청 내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중인 모습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는 시범운영 실적을 분석한 후 산하기관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도 깨끗하고 평화로운 양천을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경호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 미국주식 투자, 알람은 끄고

언제까지 알람 맞춰가며 미국주식 하실래요?  
이제 알람은 싹 끄고! NH투자증권만 딱 커주세요!

## NH투자증권에서는 24시간 미국주식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자산기적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국주식 미마수수료 0.25%(미국, 유럽인 기준) 및 제비용 0.0008%(미국주식 기준, 미디어, 센트 미만일 경우 1센트 부과 / 오프라인 등일, 국가별 상이) 발생하며, 기타 수수료/제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24시간 거래 ※미국 주간거래 서비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금융용역규제국이 승인한 대체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를 지원※ 미국 주간거래 미체결 주문은 프리미엄 청구장, 에프티미켓으로 연결되거나 주간거래 종료 시 취소되며 증거금 해지하는 주간거래 정 종료 후 순차적으로 처리 ※거래량이 매우 적어 거래비용이 크거나 또는 가격이 왜곡될 수 있음. ※당일 권리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거래소에서 마마를 제한할 수 있음 ※위 사유 외에도 시세확인 및 주문전송이 정규장 마비될 수 있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실사필 제2023-00859호 (2023.03.15 ~ 2024.03.14)

**NH투자증권**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지금이 제철이다



**IBK기업은행**  
**IRP**

올해가 가기 전! 연말정산 꿀맛 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평생 0원

i-ONE 뱅크, 인터넷 뱅킹으로 신규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6.5%,  
148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금리 퇴직연금 ELB 출시!

원리금 보장,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23-04295호(2023.11.23 ~ 2023.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462호(2023.11.17) [유효기간: 2023.12.31]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 ※ 개인형IRP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해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5천만원까지(운용회사별 합산) 예금자보호 ※ 개인형IRP에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 투자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개인형IRP 연금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향후 변동 가능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 유의사항> ※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원금지급형으로, 투자자 성향은 저위험(안정추구형)으로 분류 ※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개인형IRP 계좌에서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으로만 예약매수 가능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 자산가격 변동, 발행회사신용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등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발행사 IBK 투자증권(AA, 2023.8.29, NICE 신용평가)의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 청약의 권유는(예비·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름 ※ 수익률은 조건 충족 시 최대 수익률에 불과, 수익률 달성 비보장, 투자전 확인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 가능 ※ 원금 부분 지급이나 원금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시 최대 손실율 초과 가능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신진서, 구쯔하오 꺾고 LG배 4강 진출…커제와 결승행 경쟁

변상일, 4강서 미워팅과 대결…안성준·한승주는 8강서 탈락

신진서와 변상일 9단이 LG배 4강에 진출했다.

한국 바둑랭킹 1위 신진서는 11일 전남 신안군 증도면 신안갯벌박물관에서 열린 제28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8강에서 중국 랭킹 1위인 구쯔하오 9단에게 154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양국 1위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경기는 구쯔하오의 좌각으로 인해 심겁게 승부가 걸렸다.

구쯔하오는 중반 초입 상변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질렀다. 신진서는 상대의 빗음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응징해 일찌감치 확실한 우세를 장악했다.

구쯔하오는 우변과 하변에서 형세 반전을 노렸으나 여의치 않자 상당히 이른 시간에 돌을 던졌다.

대국 후 신진서는 “오늘 바둑은 구쯔하



원쪽부터 미워팅·변상일·커제·신진서

오 9단이 초반에 실수하면서 쉽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랭킹 1위 구쯔하오 9단을 이겼지만, 남은 중국 선수들도 모두 강하다”

라며 “내일 하루 푹 쉬고 4강전에서도 나의 바둑을 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8강전에 나선 변상일 9단은 중국의 신예 왕싱하오 9단을 171수 만에 흑 불계로 꺾었다.

변상일은 제25회 대회에 이어 두 번째 LG배 4강에 올랐다.

변상일은 “대체로 잘 풀려서 비교적 쉽게 이길 수 있었다”라며 “3년 전 4강에서 아쉽게 진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이어가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안성준 9단은 미워팅 9단에게, 한승주 9단은 커제 9단에게 각각 패해 탈락했다. 8강전이 끝나고 4강 대진 추첨 결과 신진서는 커제, 변상일은 미워팅과 각각 맞붙게 됐다.

신진서는 커제와 통산 상대 전적에서 10승 11패로 뒤져 있지만 2021년 11월 이후 5연승을 달리고 있다.

변상일은 미워팅에게 2승 4패로 뒤진 상태다.

LG배 4강은 하루 휴식을 취한 뒤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우승 상금은 3억 원,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 최준영 기자

## 한국, 세계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22위…역대 최악의 성적



양골라 전에서 슛을 던지는 류은희

한국 여자 핸드볼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사상 가장 낮은 순위인 22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 32개 참가국 가운데 22위로 순위가 정해졌다.

1957년 창설된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이 20위 밖으로 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은 1971년 4회 대회까지는 10개 나라 미만이 출전했고, 5~8회는 12개국, 9~11회 대회는 16개 나라가 출전했다. 이후 24개국 체제로 대회가 운영되다가 직전 대회

는 슬로베니아, 프랑스, 앙골라에 차례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 32개 참가국 가운데 22위로 순위가 정해졌다.

1957년 창설된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이 20위 밖으로 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은 1971년 4회 대회까지는 10개 나라 미만이 출전했고, 5~8회는 12개국, 9~11회 대회는 16개 나라가 출전했다. 이후 24개국 체제로 대회가 운영되다가 직전 대회

인 2021년 대회부터 32개로 참가국 수가

늘었다. 한국은 1995년 우승, 2003년 3위 등의 성적을 내며 세계 강호로 군림했으나 최근 전력이 약해져 이번 대회에서 처음 20위 밖으로 밀렸다.

종전 한국의 이 대회 최저 순위는 2001년 대회 24개국 중 15위였다.

한국 여자 핸드볼은 올해 8월 열린 2024년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우승,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으나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는 일본에 10골 차로 져 대회 3연패 달성을 실패했다. 또 이번 세계선수권에서는 비교적 약체로 꼽히는 그린란드만 물리쳤을 뿐 1승 5패로 부진했다.

반면 일본은 결선리그에서 덴마크, 세르비아 등 유럽 팀들을 제압하며 선전, 최종 순위 17위에 올랐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8강 대진은 스웨덴-독일, 프랑스-체코, 덴마크-몬테네그로, 네덜란드-노르웨이 등 유럽 팀들로만 채워졌다.

이 대회에서 비유럽 국가가 우승한 사례는 1995년 한국, 2013년 브라질 등 두 번이 있었다.

/ 강동준 기자

## 여자프로테니스 투어 ‘올해의 선수’에 세계 1위 시비옹테크



이가 시비옹테크(풀란드)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 WTA 투어는 12일 올해의 선수와 기량 발전상, 컵백상 등 주요 개인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의 선수로 뽑힌 시비옹테크는 1월부터 9월까지 계속 단식 세계 1위를 지켰고, US오픈이 끝난 뒤 아리나 사발렌카(2위·벨라루스)에게 잠시 1위 자리를 내줬지만 2개월 만인 11월 초에 다시 1위를 되찾았다.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 2연패를 달성한 그는 올해의 선수에도 2년 연속 선정됐다. WTA 투어 올해의 선수에 2년 연속 뽑힌 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연패를 달성한 세리나 윌리엄스(은퇴·미국) 이후 이번 시비옹테크가 처음이다.

기량발전상은 정친원(15위·중국), 신인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뉴키머는 미라 안드레예바(57위·러시아)에게 돌아갔다.

/ 권정석 기자

김하성, “상습 폭행” 주장 임혜동

‘명예훼손’ 추가고소



김하성

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심하게 구타 당한 건 세 차례이고 그 외 가벼운 폭행과 술자리에서 술병을 던지거나 운전 중 뒤통수를 때리는 건 너무 일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은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임씨로부터 지속해서 합의금을 요구받았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씨가 4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낸 뒤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하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했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김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임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김하성에게 일방적으로 꾸준히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 측이 “일방적·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김씨 주변 인물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 노정윤 기자

## 38세 맞나?…득점 감각 여전한 호날두, 올해 50호골 채워



올해 50호골 채운 호날두

3-1로 앞선 후반 29분 추가골을 넣었다.

호날두는 오타비오의 침투 패스를 골지역 정면에서 받아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대를 갈랐다.

알나스르는 호날두의 활약에 힘입어 ‘라이벌’ 알사바브를 5-2로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호날두는 이날 골로 2023년 50호 골을 채웠다.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결별한 뒤 올해 1월 알나스르로 이적하며 사우디 리그에서 뛰게 됐다.

38세인 호날두의 득점력은 중동 무대에서도 빛나고 있다.

호날두는 올 시즌 알나스르에서 공식 전 20골을 터뜨렸다.

/ 백도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 끼쳐 죄송”

프로포폴 9.6L 등 181차례 투약·대마 흡연 등 혐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며 “여러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재판장)에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할 수 있는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유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유씨의 죄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이다. 그는 2020년 9월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유씨와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변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씨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 김재원 기자

## 엄정화 24년 만에 단독 콘서트

“정말 꿈만 같아”



가수 엄정화가 24년 만에 열린 자신의 단독 콘서트에서 “오래 기다려준 팬들 덕분에 도전할 수 있었다”면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1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엄정화는 지난 9~10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마련한 단독 콘서트 ‘초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엄정화는 회당 150분간 데뷔곡 ‘눈동자’를 시작으로 히트곡 ‘초대’, ‘배반의 장미’, ‘디스코’ 등 약 20곡을 선보였다.

엄정화는 “정말 꿈만 같다”며 “단독 콘서트를 다시 하기까지 24년을 기다려준

팬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금도 한쪽 성대가 성치 않다”면서도 “기다려줬던 분들 덕분에 도전하고 노래할 수 있었다”고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공연에는 음악 예능 ‘댄스가수 유랑단’으로 인연을 맺은 김완선·이효리·화사, 힙합 듀오 지누션, 가수 산다라 박, 현아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엄정화는 오는 23일 대구 엑스코(Exco), 3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단독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 홍연희 기자

## BTS 지민·정국 오늘 육군 동반입대

멤버 전원 군 공백기 돌입



임대를 앞두고 머리를 짧게 자른 방탄소년단 지민(좌)과 정국(우)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과 정국이 12일 육군 현역으로 동반 입대한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멤버 7인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지민과 정국은 이날 한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해 군 복무를 시작한다.

이들의 전역 예정일은 2025년 6월로, 방탄소년단은 이후 팀 활동 재개를 예정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올해 4월 제이홉, 전날 RM·뷔가 잇달아 군 복무를 시작했다.

슈가는 지난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

로 근무 중이다.

가장 먼저 입대한 진은 어느덧 임대 1년이 됐고, 최근 병장으로 진급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민은 전날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정국이와 같이 입대하게 돼

의지가 많이 될 것 같다”며 “멋있게 잘하고 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국 역시 지난 8일 위버스 라이브로 “(그동안) 정말 바쁜 삶이었다. 덕분에 행복한 활동을 하다가 간다”며 “군대는 남자라면 당연히 갔다 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군 공백기를 맞아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놨다.

정국은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 박소희 기자



## tvN ‘김창옥쇼’ 내년 시즌2로 돌아온다

CJ ENM은 tvN 시사교양 ‘김창옥쇼: 리부트’ 시즌2를 내년 상반기에 방송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업인 김창옥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연하는 프로그램인 ‘김창옥쇼’는 2020년 4월 2부작으로 처음 방송됐다. 그 후 속편

인 ‘김창옥쇼: 리부트’는 올해 9~11월 시즌1이 8주에 걸쳐 방송됐다.

시즌1이 부부 방청객을 대상으로 설루션을 제공했다면 시즌2는 연인, 형제, 친구, 부모 자식, 동료 등 더 다양한 관계의 갈등과 고민을 다룬다. / 오민선 기자

## SBS ‘커넥션’에 지성·전미도 출연…형사·기자로 호흡



‘커넥션’은 누군가에 의해 마약에 강제로 중독된 마약팀 에이스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스릴러다.

지성은 안현 경찰서 마약팀 경감 장재경을 연기한다. 재경은 선후배들의 믿음을 한 몸에 받는 에이스 형사로 일에 몰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신을 지키는 인물이다.

전미도는 자기주장이 강한 안현경제일보 사회부 기자 오윤진 역을 연기한다.

‘커넥션’의 내년 첫 방송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박진혁 기자

##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http://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도내·매력 특별시 서울

SEUL M! SOUL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좋은 집으로 가는 길

유연한 도시계획

신속한 계획결정

혁신적인 디자인

신속통합기획

서울형 정비지원 계획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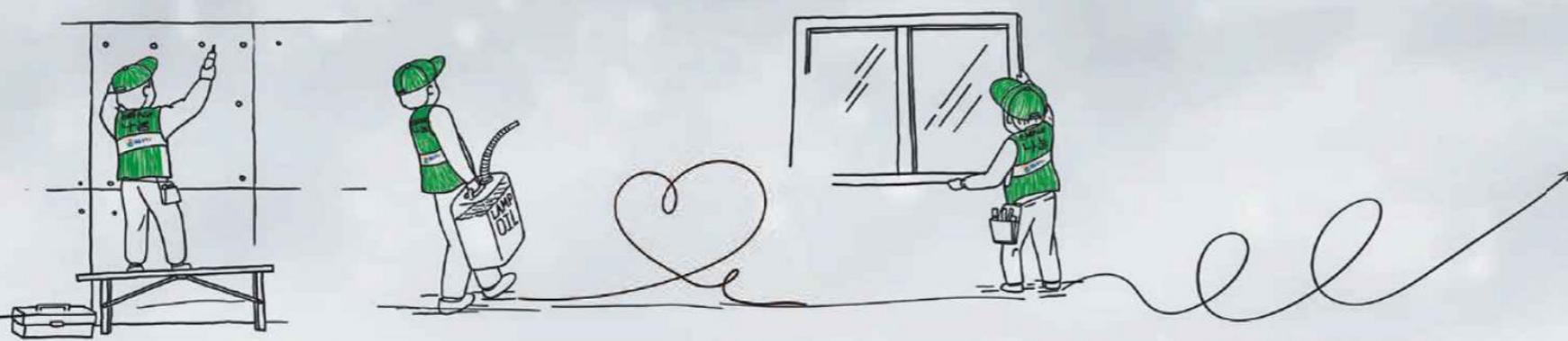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 에너지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일,  
**GS칼텍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